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 임 순

2021年 8月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 상담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




지도교수 김 민 호

김 임 순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年 6月

김임순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u>서 명석</u>	
위 원	<u>김 종익</u>	
위 원	<u>김 민호</u>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1 年 6月

Psychological phenomena experienced by  
parents in the process open adoption counseling

Im So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Master of Psychotherapy)

2021.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Min Ho Kim Prof. of Psychotherapy  
.....

*Min Ho Kim*  
.....

(Name and signature)

*June, 2021*  
.....

Date

Department of Psychothre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AC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5
II. 이론적 배경 .....	6
1. 공개입양의 이해 .....	6
1) 공개입양의 개념과 구성요소 .....	6
2) 입양절차와 입양상담 .....	11
2. 열등감과 보상의 심리 .....	17
III. 연구방법 .....	21
1. 현상학적 연구 .....	21
2. 자료수집 .....	23
3. 자료 분석 .....	26
4. 연구자의 위치 .....	27
IV. 연구 결과 .....	29
1. 공개입양상담의 맥락 .....	29
1) 한국 공개입양의 역사.....	29
2) 자녀의 유무 .....	32
3) 자조모임 참여.....	36

4) 부부소통 .....	38
2. 공개입양상담 과정에서의 심리현상 .....	39
1) 도출된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 .....	39
2) 입양 전 심리현상: ‘꽃을 피우다’.....	42
3) 입양 직후 심리현상: ‘꽃잎이 지다’.....	47
4) 입양 후 심리현상: ‘열매를 맺다’.....	50
3. 공개입양상담 과정의 의미 .....	59
1) 부부 상호보완 .....	59
2) 가족의 결속 .....	61
3)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되기 .....	63
 V. 논의 및 결론 .....	 65
1. 논의 .....	65
2. 결론 .....	66
 참고문헌 .....	 70
ABSTRACT.....	75
부록.....	77

## 표 목차

<표 III-1> 연구 참여자 기본 인적 사항 .....	24
<표 IV-2> 도출된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	39

국문초록

# 공개입양 부모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

김 임 순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므로 입양 전과 입양 후까지 심리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공개입양 가정 다섯 가정의 부모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1자녀 이상 공개입양한 가정이며, 한국입양홍보회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입양상담이 종료된 지 1년 미만이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참여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진술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입양 부모들이 경험한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35개의 구성의미, 12개의 주제, 3개의 주제군이 도출되었다. 12개의 주제는 심리적 현상이며 3개의 주제군은 입양 전, 입양 직후, 입양 후이다. 이 결과들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입양 전과 입양 직후, 입양 후로 심리현상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부모



들의 심리적 현상은 양면적 감정이 함께 공존하였다. 즉 불안하면서도 안도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입양 전부터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들러의 열등감과 보상의 과정으로 입양을 진행하고 자녀가 없는 열등감을 보상하고 더 나은 우월을 추구하면서 가족의 결속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

둘째, 입양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가족의 새로운 결속을 경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의 가족 되기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입양가족은 혈연이 아닌 법적·사회적 관계로 가족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모두가 수용하므로 결속을 경험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적응하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입양 부모가 입양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할 때 자녀가 힘들어할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공개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입양 부모는 입양아동이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받아들여 하므로 입양아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넷째 연구 참여자 다섯 가정은 입양에 만족하고 있고, 할 수 있다면 둘째 자녀도 입양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입양으로 자녀를 얻고 가족을 이룬 것에 대한 만족감이 크고 입양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가족 되기를 통해 자기 성장과 우월감 추구를 이뤄나가며 행복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주제어 : 공개입양, 입양상담, 심리현상, 가족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가족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독신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황재필, 1995). 가족의 여러 형태 중에 입양가정이 있다. 입양가정은 입양을 통해 가정을 형성한다.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이 아닌 개인들 간에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물학적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합법적 절차이다(Hollinger, 1991).

이는 입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입양이 결혼, 출산 등과 같이 가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보여준다.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입양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현행 아동복지 관련 문헌과 생각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만, 입양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문제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부모들의 권리는 종료되고 부모 역할을 할 권리 및 책임은 입양 부모들에게 주어짐을 뜻한다. 도덕적 관점에서 한 사회는 생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입양을 고려할 지의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의 결정에 합의해야 한다. 입양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이의 최상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입양이 또한 문화적인 것은 가족형성과 부모역할은 모든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Kathleen, 2015).

현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는 혈연에 의한 가족 형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여기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에서 공개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홀트 아동복지회의 경우 공개입양 사례가 2002년 25.4%에서 2004년 30.9%로 빠른 폭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방송매체에서는 빈번

하게 공개입양 가족의 사례를 접할 수 있어 공개입양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대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입양 관련 기관들에서 공개입양을 권장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혈연중심 문화가 잔존하여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공개입양이 확산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입양은 점차 여아의 비율이 높아지며, 입양의 동기에서도 혈연중심의 입양에서 정서 중심의 입양으로 변화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입양은 입양아, 양부모, 생부모, 입양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입양의 문제는 평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배태순, 1998).

가정 내에서 입양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패쇄적인 의사소통 방식보다 입양인들에게 더 높은 정체성 점수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Hoopes, 1990). 입양아가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데 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생부모에 대해서 양부모와 자유롭게 말할수록 유익하다. 그러므로 공개입양이 입양아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입양은 입양된 아동, 입양 부모, 그리고 아동을 입양 보낸 친생부모의 심리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과정이며 일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점에서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공개입양 부모는 부모로서 그들만의 특수한 스트레스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입양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은 불임의 문제 수용과 관련된 것, 입양아동에 대한 과보호나 양육집착, 입양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아동의 어려움 그리고 입양아동과 부모간의 성격의 부조화 등으로 나타난다(Descoteaux, 1994).

그러므로 입양을 통한 부모가 되는 것은 직접 낳아 기르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Kirk, 1984). 그러므로 입양부모와 입양아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갖게 된다. 상실감, 거부감,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 정체감, 친밀감에 관한 것이다(김영화, 1997) 가족제도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람은 생부모, 유전적 배경,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가정 체계 속에서 태어난다(Bradbury & Marsh, 1988). 이와 대조적으로 입양은 종종 아이가 입양가정 체계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체계에서 완전히 격리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입양아는 자신이 지닌 유전적 정체성을 입양가정으로 가지고 온다.

입양인의 유전적 정체성은 입양으로 변화되거나 수정될 수 없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언제나 남게 된다(Reitz & Watson, 1992). 입양인들이 지닌 과거의 정체성은 그들의 새로운 가정에서 거부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이다(Brodzinsky et al., 1992). 입양 부모들은 아이들이 입양되기 이전의 이력을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서 생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Hartman & Laird, 1990, Kirk, 1984). 그러므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입양 부모가 자기 아이의 생부모의 정보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개입양이 실행되어야 한다(Grotevnt & McRoy, 1998). 입양이 가족이 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공개입양부모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심리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 입양연구는 입양정책이나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사후 관리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입양의 발전과 활성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공개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정 제공, 만족도, 인식, 욕구, 가족 기능에 대한 연구이다. 사회 복지적 측면으로는 한기옥(2003)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 복지적 측면으로는 박미정(2008)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 행동과 입양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입양모와 입양 아동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입양 경험, 입양적응, 입양 공개경험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권지성, 2003)에서 국내 입양가족의 부모들도 입양아동과 같이 아동을 인정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 경험(이현정, 2002, 현태옥, 2004)에 관한 연구에서 이현정(2002)은 입양부모 양육 경험을 입양 형태에 따라 사례분석을 하였고 입양 형태에 따른 입양의 동기와 양육과정에서의 장·단점을 통해 입양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현태옥(2004)의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에서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입양가정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를 드러나게 함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지만 양육의 두 주체 중 주로 어머니의 양육체험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강다선(2010) 입양 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입양 부모들

을 연구대상으로 비밀입양, 공개입양, 연장아 입양, 신생아 입양 등의 입양경험을 연구함으로써 사회편견으로 입양가정이 힘들어하고 있으나 입양 사실에 만족하고 입양아에 대한 사랑이 친자녀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입양을 활성화 하여 요보호아동이 가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복지적 측면을 강조했다.

국내 공개입양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안찬영, 2008)에서는 국내 입양모들은 다른 지지원보다 입양 부모 모임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 모두 입양한 후에 가족으로 적응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며 부모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을 때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입양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함혜란, 2010)연구에서 양육자로서 입양아동 아버지는 입양아동의 애착 형성과 가족 적응을 도우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수록 입양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더 원활하게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입양가정의 심리적 현상을 살펴볼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입양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현상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다.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형성 기반이 될 수 있기에 부모의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현상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입양상담은 입양성립 전과 후 모두 진행되므로 입양 전, 입양 후 양육과정에서의 심리현상도 이해할 수 있다.

## 2. 연구문제

첫째,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은 무엇인가?

둘째,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맥락은 무엇인가?

셋째,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Ⅱ. 이론적 배경

### 1. 공개입양의 이해

#### 1) 공개입양의 개념과 구성요소

입양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입양을 통해 성립된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나 의무가 친자녀-부모관계와 동일하다. 입양은 친생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친생부모로부터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일시적인 보호가 아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을 갖게 하는 사회복지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개입양이란 입양 전에 이루어지는 그리고 혹 입양아의 일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입양 부모와 생부모간의 정보 공유나 계약을 가리킨다(Berry, 1993).

그러므로 생부모와의 연결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개입양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개입양은 외국의 공개입양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공개입양은 여전히 생부모와의 정보교류나 연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입양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원하면 만나볼 수 있는 정도이며, 입양아동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돕는 정도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공개입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공개입양이 사회적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면 생부모와의 연락이나 정보교류 등이 보완되어 입양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양의 구성요소는 입양이 성립되기까지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입양의 삼자라 불리는 첫째 요소는 입양 부모, 둘째 요소는 입양아동, 셋째 요소는 친생부모이다.

첫째 입양 부모란 혈통에 의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라 부모가 된 자를 말

한다. 즉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 간에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친부모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무효화 된다(정용주, 2011). 입양 부모는 친생자녀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는 경우와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입양아동, 친생부모와 함께 입양의 삼자로서 입양의 주요 당사자이며, 입양아동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둘째 ‘입양아동’ 또는 ‘입양아’ 혹은 ‘양자’라고 부른다.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미아, 기아, 아동학대, 미혼모 출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중에서 자신의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이 입양아동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그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제4조에 의하면 입양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뜻하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또는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도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이거나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뢰한 자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라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요보호아동 6,926명이 발생되었으나 그중 1,989명 약 30%의 아동이 미혼모의 자녀들(보건복지부, 2013)로서 입양이 의뢰된 아동들이다. 가정을 형성하여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미혼모가 많은 편이어서 요보호아동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친생부모란 ‘생물학적 부모’ 혹은 ‘출산부모’로 부르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친부모’라고 부른다. 자녀를 낳았지만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혹은 양육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입양에 동의함으로써 아동양육을 포기하는 부모이다. 친생부모는 기혼부모와 미혼부모로 나눌 수 있다. 기혼부모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다가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사망, 이혼, 빈곤 등으로서 도중에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이며, 미혼부모라 함은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없는 이유로 입양에 동의한 경우다.

그러므로 친생부모란 입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아동의 입양의뢰하는 즉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생물학적인 부모를 말한다.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허남순, 2002). 미혼모의 발생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입양은 그 유형에 있어서 비밀 입양과 공개입양, 반공개입양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밀 입양이 주로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공개입양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입양은 자녀와 주변 사람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아동이 자신의 출생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 주도로 기관에서의 입양으로 전환된 현재는 기관에서 입양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입양하게 된다. 입양상담은 입양성립 전부터 입양성립 후 사후 관리(약 1-2년 )까지 진행된다.

비공개 입양이란 입양 부모가 아동의 입양 사실을 소수의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부부가 출산한 것처럼 아동에게도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비공개 입양의 배경에는 혈연에 입각한 우리나라 가족제도 안에서, 입양아동이 부정적인 오해와 편견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입양 부모가 자신의 불임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입양 사실을 감추고 비밀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강다선, 2010).

그러므로 입양 후에 부딪히는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움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가중한 스트레스도 감내해야만 한다. 또한 비 공개입양을 선택하는 입양 부모들은 아동의 입양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동이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또는 놀림을 당하지 않을까?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입양을 원하고 있다.

입양 부모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 본인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입양하는 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한다. 이를 입양기관에서는 ‘가임’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입양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입양 방식이다(김외선, 2011). 이러한 입양방식은 입양아동이 입양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입양 부모들만 입양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정작 입양된 아동은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전혀 없기에 아동으로 보면 입양 부모를 친생부모로 알고 자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양 부모는 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과 아동의 문제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다선, 2010). 또한 아동을 입양한 후 입양 부모들은 정당한 보호 양육권을 가지는 유일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입양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아동과 본인들을 보호하고자 입양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 입양이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

첫째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써 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둘째, 아동의 유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차단하고 입양 부모의 친생자녀로 성장함에 따라 후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셋째, 입양 부모는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게 되어 어려움을 겪지나 않을까 항상 염려하는 마음을 지내게 된다. 비공개 입양가족들은 사회적인 공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입양 후 전문적 도움을 받기 어렵고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거나 외부에 드러낼 수 없다(권지성, 2003).

이에 비해 공개 입양이 지닌 이점은 첫째 입양 부모가 입양아의 생부모의 대한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이의 생물학적 유산에 대한 거부를 줄여줄 수 있으며, 둘째 생모가 느끼는 이별의 슬픔을 줄일 수 있고, 셋째 입양아의 정체성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Berry, 1993)

이러한 폐쇄적인 입양풍토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에서 입양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높이기 위해 입양 부모 자조 모임(MPARK, 한국입양홍보회)와 건강한 입양가정을 위한 모임(건모)를 만들어 공개

입양을 실천하며 활성화하고 있는 공개입양가족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개입양이란 입양 사실을 아동은 물론 입양가정 주변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비공개 입양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입양에 관한 사실들을 드러내놓고 논의하기 어려웠고, 또한 일반인들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에 입양에 관한 연구나 토의가 쉽지 않았다(권지성, 2003).

공개입양은 입양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입양이 친생부모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절단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입양에서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유전적인 생물학적 혈통과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적 욕구라는 것’이고 그래서 입양인의 정체성을 찾기는 인정되어야 성공적인 입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배태순, 1998). 그러나 최근 공개입양가정에서 친생부모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입양가정 내에서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였던 입양가정은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개입양의 긍정적인 면과 공개입양의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경련, 2007).

한편 혈연관계 의식이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입양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큰 도전이고 입양 부모에게는 또 하나의 커다란 양육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현태욱, 2004., 권지성, 2003). 사실 입양 부모는 언제, 어떻게 입양 사실을 공개해야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아이의 정체성 확립에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면서, 입양 사실 공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또한 잘 판단하여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이미 우리 사회는 공개입양비율이 2007년 57.1%까지 나타날 정도로 빠른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홀트아동복지회, 2008)는 것은 입양의 발전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입양을 공개적으로 직면하고 다룰 때 입양이 입양인의 자아개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더 많은 반면, 입양과 관련된 의문과 감정의 억압은 증후군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Reitz & Watson, 1992; Brodzinsky et al., 1992). 입양아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아이의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해줘야 한다(Hartman & Laird, 1990). 아이는 자신의 생부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입양된

것에 대해 자신의 입양부모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열려있고 입양에 대한 의논이 환영을 받을 때 청년기에 혼란에 빠져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진다(배태순, 1997, Hartman&Laird, 1990). 따라서 입양 비밀주의는 아이의 행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배태순, 1997, 1998a, 2000a, Grotevant & McRoy, 1998).

이 연구에서 공개입양이란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개념보다는 입양 아동자신이 입양 사실을 알고,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양된 사실을 거짓 없이 밝히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고, 아동에게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이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알고 양육되는 아동은 입양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입양 부모 혹은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도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입양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동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 출산, 결혼, 입양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입양은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른 생애 전반에 걸친 양육과정이다.

## 2) 입양 절차와 입양상담

입양상담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나 독신가정이 입양기관에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어 입양성립이 된 후 사후 관리까지의 약 2년의 과정 동안 진행된다. 입양특별법에 따른 입양상담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보면 먼저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초기 상담을 거쳐 입양 서류를 접수한다. 국내 입양기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 동방 사회복지회, 대한 사회 복지회와 성가정입양원이 있다.

입양 부모의 조건으로는 입양아동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심리검사와 약물·알코올 중독 검사를 받아 건강한 정신과 중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은 부모 교육을 8시간 받고 가정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입양을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가정환경의 상태를

확인 한다. 그리고 아이를 선보고 부모와 아동이 결연되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다. 법원 판결이 떨어지기까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나면 긴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 후 1년간 입양 기관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 까지가 입양상담이다.

1994년 입양특례법 개정은 아동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개정된 법은 가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메카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입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가정 바깥에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입양을 강조한 최초의 법이었다(권정희, 1994). 권정희에 따르면 그 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이 있었다.

첫째, 모든 입양절차는 허가받은 입양 중개기관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독립적인(중개기관이 아닌 경우) 입양은 금지한다.

둘째, 입양 배치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입양중개기관에 의해 입양가정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입양이 성사된 후에는 아이들에 대한 감독과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넷째, 허가 받은 입양 중개기관이 입양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입양 부모들에게 입양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961년 처음 제정된 아동가족법 역시 입양정책 및 관행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2000년의 개정은 아동학대와 방치를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상황으로 특정한 매우 중요한 입법 과정이다.

입양특례법은 아동 복리 최우선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전면 개정, 2012년 8월 시행된 이후 몇 번의 보완을 거쳤다. 해외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경우 부모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개정의 중요한 이유이다.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신고제에서 법원의 허가제로 바뀐 것이다.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 아이의 출생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전에는 양부모 밑으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비밀 입양이 가능했다면,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와 출생신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밀 입양이 힘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공개입양으로 입양을 진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은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 1548명으로 전해 대비 증가했던 국내 입양은 2012년 1125명, 2013년 686명으로 줄었다. 출생신고를 피하려는 미혼모들 때문에 베이비박스가 붐비게 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상담으로 공개입양으로 입양을 진행하게 되었고,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을 때 자료를 남기기 위해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지만 출생신고서가 부담이 되어 미혼모들이 입양을 기피하고 베이비박스를 선택하게 되고 또한 공개입양이 부담스러운 입양 부모들은 입양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입양 자격으로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다.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25세 이상 양자 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 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다.

독신가정의 경우는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 입양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족 구성원 전체가 입양에 동의하기

입양하려면 우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와

같이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양을 통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동은 가족의 어느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구성원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며 배우자의 동의는 가장 중요하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비밀 입양을 진행하는 가족들 중, 혹시 입양된 아동이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것을 걱정하여 친자들에게조차 비밀로 하여 입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 ② 입양상담 및 서류접수

국내 입양을 진행하는 입양기관으로는 홀트 아동복지회, 동방 사회복지회, 성가정 영아원, 대한 사회복지회 등으로 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알아보고 서류접수를 한다.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 조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건강진단서(부부 각1부씩,)는 필수사항이며 그 외 가족사진과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그리고 독신가정인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 대신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따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서식) 여기에는 입양부모의 인적사항 즉,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적-출생등록지-, 주소,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을 기입하여야 하며, 재산은 주택(자가, 전세, 월세등 구분)과 동산, 부동산 그리고 부채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사항과 입양 희망 아동의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③ 입양 부모교육 이수와 가정조사 2회

입양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입양신청자는 입양부모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령 정하는 소정의 부모교육 이수를 하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입양기관마다 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하려는 기관에서 받지 않

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입양부모교육을 이수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이 실시된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신청한 가정의 서류를 검토하고, 아이가 자라게 되는 가족의 분위기와 집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 가정방문을 마친 사회복지사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 4호 서식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적-출생등록지-, 주소,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을 기입하여야 하며, 재산은 주택(자가, 전세, 월세등로 구분)과 동산, 부동산 그리고 부채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사항과 입양 희망아동의 성별, 연령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④ 양친 가정 조사서 발급

입양기관에 양친 가정 조사서를 신청하면 입양기관에서 가정조사를 마친 후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한다. (입양기관/별지 제 7호 서식)

#### ⑤ 아동 선정(아이와의 첫 대면)

가정방문까지 살펴 본 후 입양기관에서는 입양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가정과 아동을 연결하게 된다. 아동을 만나러 가는 가족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연결시켜주는 아동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가족들도 있다.(하지만 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⑥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양허가 판결을 받아야 한다. 구비 서류로는 입양허가 신청서, 신청관련 사항 목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양친 가정조사서, 양칠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입양동의서,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입양가정은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가 끝난 후 아동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입양기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⑦ 입양성립과 사후 관리

가정법원의 인용 심판 확정으로 입양 허가를 받음으로 입양이 성립된다. 그 후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 절차는 크게 입양 신청접수, 가정조사, 부모교육, 아동의 선정 및 입양의 성립, 사후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부모는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하여 입양상담 및 신청을 하게 된다. 이때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입양을 신청한 부모를 대상으로 입양동기, 경제 여건, 연령, 불임여부, 가족사항, 원하는 아동의 특성 등에 대해 개별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조사는 개별면접을 통해 접수된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법률적 조건을 입양 부모가 만족하는지 여부와 입양 부모로서 적합한 조건과 가정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특히 입양이 가족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하게 된다(이순형 외, 2006). 부모교육을 받고 아동을 선정하고 난 후 법원으로 서류가 이양되면서 판사의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입양상담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은 첫째 입양 부모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고 입양정보를 제공해주며 정보제공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입양 부모에게 아동을 연계시켜주는 것을 비롯하여 자조집단을 연계해 주는 등 중개자의 역할이 있다. 마지막은 사후 관리로 입양 후 입양 부모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상담을 제공해 주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양 후 1년은 사후 관리를 위해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이 4회 이루어지며 아동이 건강하게 잘 양육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게 된다.

## 2. 열등감과 보상의 심리

열등감과 보상은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가 만든 개인심리학의 주요개념이다. 아들러는 인간의 기본 동기로서 우월성 추구 혹은 자기완성추구를 가정했다(노안영·강신영, 2003).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는 삶의 기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서이다. 즉 우월성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 경향성으로 일생을 통해 환경을 적절히 다스리며 동기의 지침이 되어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Adler, 1979). 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재보다 나은 상태인 완전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들러는 우리 각자가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들러는 자기완성을 위한 필수요인으로서 열등감을 들었는데 열등감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았다.

개인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우월성 추구를 하면 건설적 생활양식을 갖게 되어 심리적 건강을 달성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기 위해 매진한다. 반면에 개인이 열등감을 개인적 우월성 추구에 집착하면 파괴적 생활양식을 갖게 되어 신경증에 빠지게 된다(Ryckman, 2000).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열등감과 그에 대한 보상 노력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도 안 될 경우 열등감이 더 강화되어 ‘병적 열등감’에 이를 수 있다. 아들러는 병적 열등감을 성인기 신경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최옥채, 2008).

열등감은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좀 더 안정을 추구하려는 데서 생겨난다. 이러한 열등감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인간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사회복지연구

센터, 2013). 보상은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이다. 인간은 항상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기술을 훈련하여 부족한 점을 충족하려는 시도가 바로 보상이다. 인간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우월감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개인으로서는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며, 자기완성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란 개념을 자기완성 추구, 성공 추구, 혹은 의미추구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들러는 우월성 추구를 인간의 기본적 추동이라고 보았다.

아들러는 인간의 자기 신장, 성장, 능력을 위한 모든 노력의 근원의 열등감이 라고 말했다. 우월성의 추구는 삶의 기초적인 사실로, 모든 인간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낮은 것은 높이고, 미완성의 것은 완성하며, 무능한 것은 유능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성이다. 즉 우월성 추구는 모든 사람의 선천적 경향성으로 일생을 통해 환경을 통해 환경을 적절히 다스리며 동기의 지침이 되어 심리적인 활동은 물론 행동을 안내한다. 아들러는 우월성의 추구를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초에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는 양식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월성 추구의 노력은 인간의 현 단계에서 보다 넓은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끌어 준다.

아들러는 우월성의 추구는 그 자체가 수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취나 성숙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노안영, 2003). 인간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월하게 되는 것이다. 우월은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동기로서 선천적이다. 우월을 위한 노력은 출생 시 잠재력으로 존재하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미완성인 것은 완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선천적인 것으로 출생 시에는 실재가 아닌 잠재력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인간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 경향도 있지만 부정적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최옥채, 2008). 우월을 향한 추구는 ‘개인과 사회’ 2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즉, 개인은 개인으로서 완성을 향해 노력하

고, 사회는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들러는 개인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3).

아들러는 개인의 정신 건강을 사회적 관심 수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사회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부적응자는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관심이란 협동, 대인 사회적 관계, 집단에의 동일시, 공감 등 사회가 완전해지기 위해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들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회적 관심은 타고 나는 것이고, 인간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선천적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높은 사회적 관심을 가진 개인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협동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나 인류에 대한 공헌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미래지향적으로 이상적인 복지사회와 인류의 진보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얻게 되는 자기 가치감은 열등감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이것이 사회적응의 기준이 된다(최옥채, 2008).

사회적 관심은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심리적 성숙의 주요 기준이 되며, 선천적이지만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은 장래의 모든 적응력의 중요한 관건으로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이다. 사회적 관심의 발달은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발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이고 그 다음은 아버지이다. 아들러는 자녀에게 사회적 관심을 키워주는 능력은 중요한 인생과업 3가지(일, 우정, 사랑과 결혼)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 갖는다고 보았다(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3).

공개입양 부모들의 심리 현상을 살펴보면 공개입양부모는 자녀가 없는 상황이거나 자녀가 있지만 형제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상황을 자신들의 부족함 즉 열등한 부분으로 보고 열등감의 보상으로 우월을 추구하는 것이 입양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의 과정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입양을 원하는 공개입양 부모들은 본인의 열등감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우월에 대한 추구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입

양을 원하는 동기와 과정을 열등감과 보상의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불임가정인 경우 불임을 열등한 상황으로 보고 자녀를 혈연이 아닌 법적, 사회적 관계로 가정을 갖게 되는 입양을 통해 우월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인간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 경향이 있다.

긍정적 경향은 더 나은 인생을 향한 노력으로 사회적 관심이나 타인의 안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입양 성립 후에 우월에 대한 추구가 긍정적으로 미친다면 사회적 관심을 통해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우월을 향한 추구는 '개인과 사회' 2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즉, 개인은 개인으로서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사회는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인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우월을 추구하지만 사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에 사회적 우월도 함께 추구하게 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이 연구는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 질적 연구 가운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상학적인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한다(Creswell, 2015).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경험을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기술적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을 경험한 모든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험과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게 된다. 현상에 대한 경험과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확인하고 현상을 경험한 대상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현상학 연구의 적용은 모든 편견을 버리고 사실들의 출현에 초점을 두며 주어진 사실에만 충실하며, 현상이나 경험의 본질 전체의 경험들에 대해서만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그들이 경험한 “어떤 것”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경험 했는가?로 구성된다(Creswell, 2003).

현상학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으로 인간의 실제적 세계를 접근하여 각 개인의 삶의 경험과 생활세계 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경험의 현상과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상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판단중지(epoche)’ 또는 ‘괄호치기(bracketing)’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김영천, 2013). 현상학적 환원과 상상적 변이, 그리고 종합적인 특징,

의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상학적 환원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주제와 질문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진술들에 똑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취급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재의 의미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경지를 넘어서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개인적인 기술로부터 보편적인 의미, 즉 경험의 본질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신경림, 2001).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기술을 읽고 또 다시 읽어 연구자로 하여금 자료에 있는 함축적 메시지 및 명백한 메시지에 대해 개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김분한 외, 1999).

그러므로 이 연구의 주제가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공개입양 부모의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 현상학 연구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연구 방법의 하나로서 어떤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 속에서 무엇이 작동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으로 인간의 실제적 세계를 접근하여 각 개인의 삶의 경험과 생활세계 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경험의 현상과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공개입양부모의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실제 생활에 접근하여 그들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상과 본질을 발견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윤리적 차원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첫째, 연구목적과 면접내용, 활용방안,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담은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받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자로서 연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과 사생활 노출 정도에 대해 확인하게 하였고, 면접 내용 중 연구 참여자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은 논문에 기술되지 않았다.

## 2. 자료수집

###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는 입양홍보회(MPAK) 소속 자조모임 참여자로 공개입양부모로 입양상담 과정이 종료한 가정으로 자녀를 1명 이상 입양하고 자녀가 만 4세 미만인자 중 다섯 가정 부모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기본 인적사항

연구 참여 가정	입양 부모	현재 나이	친자녀 수	입양자녀 수	입양 성립일	입양 상담 시작	입양아동 현재 나이/성별
A	부	52세	0명	1명	2019. 2.	2018.2월	4세/여아
	모	52세					
B	부	51세	0명	1명	2018.8.30	2018.2월	4세/여아
	모	52세					
C	부	53세	0명	2명	2018.4 2019.10	2017. 2019.	6세/여아 4세/남아
	모	48세					
D	부	51세	0명	1명	2019.2	2018.3	4세/여아
	모	52세					
E	부	42세	2명	2명	2014.12 2018.1	2014.6 2017.2	7세/여아 4세/여아
	모	42세					

#### (1) 연구 참여자 A 가정



참여자 A가정은 부부가 동갑으로 43세 늦은 나이에 결혼(2011년)해서 44세에 임신을 했다.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하여 행복했으나 유산을 하고 다시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 4번, 시험관 9번을 시도했다. 5년 동안 자녀를 위해 서울 병원을 왕복하며 친자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커서 고통을 겪었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B가정

2012년 결혼해서 6년 동안 1번 유산의 경험을 하고 친자를 기대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자녀를 포기하기도 하다가 2018년 입양을 결정했다.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중에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가 입양을 먼저 진행하면서 용기 내 입양하게 되었다.

(3) 연구 참여자 C가정

연구 참여자 C 가정은 33세에 결혼했으나 아내가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지내다 38세에 임신을 하려고 시험관아기 3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40세가 지나면서 남편이 먼저 입양에 대한 제안을 했고, 1년 동안 상담만 받고 고민하다 42세에 제주로 이주할 계획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입양을 결정했다.

(4) 연구 참여자 D가정

연구 참여자 D가정은 남편 45세, 아내 46세에 결혼을 했다. 아내가 몸이 허약한 편이라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3년 동안은 노력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늦은 나이에 입양을 결정하면서 체력의 한계가 가장 걱정되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입양에 대한 반대가 없었고 시댁은 이혼 가정으로 새 아빠와 살고 있어 혈연에 대한 집착은 없었다. 그래서 입양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었다.

## (5) 연구 참여자 E가정

연구 참여자 E가정은 동갑 부부로 결혼 12년 차이다. 30세에 결혼해서 친자 2명 출산 후 아들만 둘이라 딸 2명을 입양했다. 첫째 남아 12살, 둘째 남아 10살, 셋째 여아 8살, 넷째 5살이다. 아들 둘을 낳고 남편이 1명을 더 원해서 아내가 입양을 제안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하다 매체와 책을 접하면서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셋째 입양했다. 넷째 입양은 남편이 먼저 제안해서 입양했다. 딸을 원해서 입양했고, 사회적 관심이 있어 가정이 없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도 입양을 결정한 경우이다.

### 2) 면담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일정한 준거를 만족하는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에 참여할 대상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또한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자발적인 필요가 있으며 연구주제를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요청하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확정된 대상자들을 가정별로 만나서 다시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여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면담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21. 3월까지 다섯 가정 10명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입양상담을 시작하여 입양하기까지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입양 후 사후 관리 서비스까지 진행을 마친지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이 만4세 이하의 가정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부모들이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참여자로부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한다는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담은 대상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면담은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면담은 한 참여가정에게 2, 3회 이루어졌고, 매회 면담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의 녹음된 이야기를 풀어쓰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족한 점은 다음 면담에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탐색하고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현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의 여러 가지 자료 분석 방법 중 분석절차의 체계적인 단계와 조직적, 구조적 기술을 조합하는 Moustakas(1994)가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문제에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결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문제로는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은 무엇인가?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므로 Moustakas(1994) 현상학적인 접근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자료 수집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심층면담과 관찰,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입양홍보회 자조모임 참가하는 다섯 가정의 부모들로서 입양상담 사후 관리가 끝난 지 1년 미만 된 1명이상 입양한 가정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2-3회의 면담으로 관찰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셋째, 현상학적 자료 분석 단계로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두 개의 광범위하고 일

반적인 질문이 주어진다(Moustakas, 1994).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경험의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이끌게 될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현상학적 자료 분석단계들은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모든 심리학적 현상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하다(Moustakas, 1994, Polkinghorne, 1989).

- ①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해 낸다. - Moustakas(1994)는 이러한 단계를 수평화라고 부른다.
- ② 의미 있는 진술들을 주의 깊게 살펴 일반적이고 구체화된 형태로 재 진술한다. -조직적 기술
- ③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구성의미를 구성한다. - 본질적 불변구조
- ④ 분석단계에서 검증된 의미로부터 주제, 주제군으로 분석하여 분류한다.
- ⑤ 분석된 자료를 주제군에 따라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현상학적 기술을 한다. 공개입양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현상학적으로 기술한다.

### 3.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는 2013년 공개입양(여아)을 통해 가족을 이룬 입양가족이다. 2000년 9월에 결혼하고 2013년 10월 1일 딸(당시 1개월)을 입양했다. 현재 딸은 9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입양홍보회 자조모임에 참석중이며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 가정의 부모를 만나 인터뷰할 때 공감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성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학술적 용어로 진술하려고 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원 자료가 중요한 연구 자료이기에 연구자의 판단중지라는 현상학적 환원을 강조하였다. 판단중지는 입양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이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공개입양부모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 추론적 요소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연구자의 경험이나 가정, 추론적 요소들을 내려놓고 연구 참여자 가정이 경험한 의미를 귀납적으로 밝히고 기술하려 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의 괄호 치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심리적 현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각 가정의 상황과 심리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각 가정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리 현상에 주목하여 자료로 수집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공개입양상담의 맥락

#### 1) 한국 공개입양의 역사

입양은 고대로부터 모든 문화에 존재해 왔다(Kadushin, 1980). 근대 이전 입양의 주요목적은 일반적으로 가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남자 상속자를 제공하는 것이었다(Sokoloff, 1993). 일차적 수혜자는 입양을 하는 부모로 여겨졌는데 이는 그들이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가계 혈통이 끊기는 것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양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한국의 입양법은 가계와 토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최상의 이익’을 유지하고 달성하도록 고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우병창, 2002). ‘입양을 하는 가정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전통은 현재 입양 관련 법률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한국사회의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은 입양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구성되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입양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유교의 핵심 가치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유교에 따르면, 가족은 그 개별구성원에 우선한다.

가정 내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질서와 위상을 지정하는 엄격한 위계가 매우 중요시된다. 어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아이들의 엄격한 복종은 미덕으로 간주된다. 한 가정의 위엄과 명예를 지키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 되어왔다. 그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식 없는 가정에 남자 상속자를 제공하는 것이 입양의 일차적 목적으로 강조되어왔다.

유교는 또한 한 가정의 연속성과 결속을 유지하는 데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어떤 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입양한 것과 관련된 아주 유의미한 낙인이 있다. 예를 들어 배태순은 입양이 한국 가정에서 그토록 드물었고 입양이 이뤄진다 해도 비밀리에 행해졌던 주된 이유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와 같은 문화적 신념을 지적한다(배태순, 1995). 2000년 초반부에 들어와 비밀유지의 힘든 점,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 아동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개입양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김경아(2002)에 따르면 1999년 6월 한 입양기관이 주최한 ‘국내입양의 의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양부모 대회’에서 공개입양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 이전까지는 강한 혈연의식을 바탕으로 입양의 형태가 비밀입양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폐된 채 부정적인 인식만 더욱 만연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의 공개를 장려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부각시킴으로써 입양에 대한 인식변화를 꾀 하였던 것이다.

이후 입양부모 자조집단으로써 한국입양홍보회(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 MPAK)는 2000년 역사적인 첫 연례회의를 개최했다(배태순, 2003; 한국입양홍보회, 2000). 이 회의는 한국 입양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제공할 수 없었던 입양사후 서비스를 포함해 예비 입양 부모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새 입양가정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지원을 제공했다(배태순, 2003; Winkler et al., 1988).

이 자조 모임의 회원은 공개적인 태도로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과 입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새롭고 더 나은 입양 관행을 한국 입양 부모 사이에 만들어 냈다. 전국에 산재한 회원들은 한국 입양홍보회 웹사이트에 아이 양육에 대한 글을 쓰고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입양스토리를 공유한다. 이들의 일기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들은 혈연 중시 사회에서 입양아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어 느끼게 되는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공유한다. 입양 부모들을 위한 한국 최초의 자조 모임이 미친 영향은 국내 입양 숫자의 증가와 입양에 대한 열린 태도로의 변화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개입양은 도입된 이후 입양가정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홍보로 유지, 확산되고 있으며 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공개입양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뒤늦게 거론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의 실제적인 입양은 민간인으로부터 출발했다. 한국 전쟁 후 미 국민 홀트 부부가 혼혈고아 8명을 국외로 입양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에 대한 대책으로 1952년 “후생시설 운영요령”이 발표되었고, 이에 의해 위탁형식의 국내 입양이 도입되었다. 1976년 정부는 입양특례법을 제정 공포하여, 모든 해외 입양기관에서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내 입양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강조하는 아동 보호대책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안재진, 2008).

우리나라에서 공개입양은 해외입양으로 인해 국가적 이미지 실추를 겪었던 정부가 국내 입양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입양 홍보는 공개입양 운동과 맞물리며 확산되었고, 그들의 중심에는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가정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2012 입양특례법으로 입양신고제에서 입양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아동이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서가 필수가 되었고, 미혼모나 입양 생모는 출생신고서 제출을 해야 하기에 자신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비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개입양 즉 입양아동이 생모를 만나고자 하거나 찾고자 한다면 연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보수적 가치관으로 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비밀리에 아이를 상자에 넣어 일명‘베이비 박스’가 생기게 되었고 버려지는 아이가 더 발생하게 되었고,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도 공개입양이라는 부담 때문에 국내입양은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같이 입양문화가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해마다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발생 규모에 비하여 국내입양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앞질렀다. 2019년 입양아는 704 명으로 국내입양이 55%, 해외입양이 45%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를 살펴보면 자녀를 갖고 싶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보겠다 (17.4%),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것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15.3%)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35.1%)라는 결과를 통해서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자녀의 유무

### (1) 유자녀 가정에서의 입양

유자녀 가정에서의 입양은 원하는 성별을 얻지 못하거나, 자녀가 있음에도 가정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게 가정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또한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종교적 사랑의 실천적 의미가 있다. 이미 자녀 양육 경험이 있고 가정에 자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입양을 통해 가정의 사랑을 사회에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연구 참여자 E가정은 유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2명의 딸을 입양했다. 이 가정의 부부는 신앙심이篤실하고 평소 사랑의 실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많았다. 우연히 12명을 입양한 가정의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보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입양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아이들이 회복되고 자라나는 모습을 접하면서 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E(부) : 저희 가정은 아들만 둘 이에요. 형 가족도 아들만 있고, 누나네 가족도 아들만 있어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었지만 또 아들일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입양가정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입양을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책도 읽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입양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통해 사회에도 기여가 되고 우리 가정에도 딸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셋째를 입양하고 나서 넷째 입양할 때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유자녀 가정은 이미 자녀를 양육 경험이 있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입양을 결정했다. 친자가 있으니 입양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미 부모로서

경험을 했기에 입양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무자녀 입양가정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월했다. 그러나 친자와의 차별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 E가정은 생각보다 좋았다고 표현했다.

참여자 E(모) : 친자가 있는데 입양을 결정했을 때 아이를 낳지 왜 입양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자와 차별을 안 하려고 해도 차별이 돼서 친자, 입양아 모두 힘들어 할 거다. 사춘기 되면 방황하고 힘들어 할 텐데 어떻게 할래? 다 크면 낳아준 엄마 찾아가면 어떻게 할래?’ 등등 출산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첫째 둘째 출산하고 아이를 안을 때처럼 딸아이를 안을 때 똑 같은 감동이 왔어요. “누가 낳았느냐 보다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E(부) : 입양을 진행할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친생자와 다를 거다” 등등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남자아이만 키워서 옷 색깔이 검정이나 짙은 계열이 많았는데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보고 새로움을 느끼고 좋았어요. 입양이어서 다른 점은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안았을 때 우리 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으로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우리 가정에 왔는데 우리 가정에서 사랑으로 보듬어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E(부) : 입양 후 딸아이를 안고 집안 모임에 가면 모두 신기해하고 예뻐했어요. 딸아이가 귀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입양 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빠들이 또 딸아子和 잘 놀아주고 챙겨주고 해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동생을 잘 돌봐주는 편이에요. 주변의 생각들과 달리 저희는 친생자와 별 차이 없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넷째도 딸아이고 입양을 했구요. 아들 둘, 딸 둘이라 좋아요. 둘을 입양하길 잘한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의 반응은 편견이 있고 부정적인 편이었지만 막상 딸을 키우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즐겁고 좋았다고 표현했다. 가족들 모임에 딸아이를 안고 가면 모두 신기해하고 예뻐하고 반겨주는 분위기여서 입양전과는 사

못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들과 달리 입양아를 양육하면서 친생자와 별반 차이를 느낄 수 없었고, 참여자 E(모)는 반편견 입양강사로 활동하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에 대해 유치원, 초, 중,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입양 경험과 더불어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입양을 알리고 있다. 유자녀 입양가정은 가정의 원하는 성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입양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 입양가정에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아동이 가정이 필요하다는 봉사와 사회적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자녀 가정에서 사회적 관심과 기여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2) 무자녀 가정에서의 입양

무자녀 가정에서의 입양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다. 이미 유산 경험이 있거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고 병원에서의 시술을 여러 번 시도 했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후 입양을 결정했기에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입양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기 때문에 아이가 오기만 하면 입양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입양 부모는 입양을 선택했으며 돌아볼 시간이 많았고 여러 번 심사숙고했던 만큼 어떠한 도전도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여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을 수도 있다. 또한 자녀 양육 경험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 많을 확률이 있어 신생아 입양을 하면 체력적인 한계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 가정 다섯 가정 중 네 가정이 무자녀 가정의 입양이다. 무자녀 입양가정은 부부가 나이가 비교적 많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임신을 했으나 유산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임신을 위한 시도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를 시술했으나 결국에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입양을 결정한 가정들이다.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나 정보가 선행되었고, 고민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 부부만으로는 가정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부가 함께 인정하고 입양을 결정한 경우이다. 입양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변화가 있고,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을 이루는 세 가지 방법 즉, 출산, 결혼, 입양 중에서 입양을 선택하고 가족을 이루었다.

참여자 A(모) : 일찍 입양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테(현재 52세)는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야기인데요. 결혼 2011년 결혼 하고 43세 가을에 결혼하고 44세에 임신을 해서 행복했어요. 결혼 후 6개월 만에 자연임신이 되니 정말 낱아갈 듯 기뻐요. 그러나 유산을 하고 아이가 다시 생길 것 같은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수정 4번 시험관 9번 시도했어요. 5년 정도는 꾸준히 시도하고 기다렸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또 생길 것 같고 남편과 똑 닮은 내 자식을 낳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일찍 포기하라고 이야기 했으면 포기했을 텐데 몸 상태가 좋다고 하시니 계속 시도했죠. 그래도 결국 안 되는 것을 알고 입양을 선택했어요. 입양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참여자 C(모) : 33세에 결혼하고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5년 정도 지내다 아이를 가지려 하니 임신이 어려웠어요. 38세에 시험관아기 시도를 3번 했지만 실패하고 40세가 지나서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1년 정도 상담만 받고 고민하다 제주로 이주하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B(모) : “아이가 드디어 오는 구나”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주로 후배가 사용하던 아기용품을 받아서 정리했고, 준비하면서 행복했어요. 처음 아이가 오는 날 제가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카시트 버클을 잘못 끼웠어요.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아서 몰랐어요. 도착해서 버클을 풀었는데 옷이 끼워 있었어요. 불편했을 텐데 울지 않았어요. 팔에 버클 자국이 있더라구요. “미안하다 버클 자국이 생기게 해서” 그만큼 순한 아이였어요.

참여자 A(모) : 입양을 결정하고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안 키워 봤는데” 나이도 많고 아이를 안아주고 잘 놀아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막상 아이를 양육하면서 물론 힘들지만 기쁨도 큰 것 같아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행복하고 책임감도 생기구요. 입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둘째 입양 준비중이에요.

참여자 A(부) : 아내가 걱정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덤덤했어요. 내 아이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확신이 있었어요. 아내의 재정적 걱정이나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지하는 걱정은 별로 되지 않았어요.

참여자 C(모) : 붕 떠 있다고 해야 하나 신비롭고 멍하고 너무 이쁘고 환각상태에 빠진 것 같고 아이가 생각나서 잠도 못 자겠고 운명 같았어요. 아이 양육은 힘들고 처음이라 당황되고 어려웠지만 아이로 인한 변화가 뿌듯하고 행복해요. 사소한 일에도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 좋아요. 그러나 40년 이상을 편하게 지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무자녀 입양의 경우는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라서 입양을 결정한 후 부모로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유산과 시험관 아기 시도 후 실패 등을 경험하고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최후 수단으로 입양을 결정하였다. 자녀 양육 경험이 없이 처음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긴장감과 막막함 그리고 기다렸던 아이를 안았다는 기쁨이 유자녀 가정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이 되어 자녀를 기다리고 양육하는 부분에서 어머니가 더 많이 현실적이 두려움이나 불안이 컸고, 아버지들은 재정적인 부분 또는 환경적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내 아이가 생긴다는 확신이 있어 감정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입양을 결정하는 부모들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자녀 입양가정이다. 불임이나 난임을 경험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입양을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것이다.

### 3) 자조모임 참여

한국입양홍보회의 자조 모임은 입양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주저했을 때 많은 예비 입양 부모들에게 격려가 되었다(한국 입양홍보회, 2001). 자조 모임은 입양 부모에게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조직되었다. 자조 모임을 통해 입양 부모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동료와의 교제와 다양한 입양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입양 부모들에게는 입양에 대한 좀 더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입양 후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다섯 가정은 모두 입양 홍보회 자조모임 참석자이다.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자녀들끼리도 또래를 형성하여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개입양을 한 경우 입양에 대한 사실을 자녀 본인이 알고 있기에 서로 같은 상황임을 알고 자녀들끼리도 위안과 지지를 얻는다.

참여자 E(부) : 입양자조모임은 아이들이 친구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가고 있어요. 모임을 갔다 오면 또 언제 가냐고 기다리더라고요. 갔다 오면 친구이야기도 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이야기 하다보면 공감도 되고 앞으로 대비도 되고 서로 함께 해서 든든해요. 요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요.

참여자 E(모) : 공개입양을 했지만 아직 저희 아이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가 돼요. 상처가 될 까봐요. 그런데 자조모임에서 이미 공개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도 나고 방법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이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연구 참여자 가정은 만 4세이기에 입양사실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자조모임을 통해 입양사실 공개의 노하우와 실제적인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기도 해서 공개입양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이해되길 돕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가정은 자조 모임을 통해 실제적인 육아 문제도 도움을 받고 입양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며 정서적인 지지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돕고 있다.

1년에 1번은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교육도 받고 다양한 행사를 자녀와 참여함으로 자녀와 자녀 또래들의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돕고 있다. 입양아동들끼리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입양이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는 방법임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조 모임은 공개입양 가정에게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이면서 협력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교육과 정서적 지지, 유대감, 또래 활동 등 입양가정들이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 가장 활발한 모임이다. 그러므로 공개입양 후 사후 관리 서비스에서 이 자조 모임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 4) 부부 소통

연구 참여자 가정의 부부들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입양의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원만한 부부관계가 입양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E(부) : 아내가 시험관 아기와 인공수정을 5년간 진행할 때 중도포기 하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기대하며 진행하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기다려 주었어요. 입양을 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먼저 입양하자고 할 때 진행했어요.

참여자 D(부) : 아내를 40대 이전에 만났다면 성격 맞추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서로 편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위축되고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은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있어서 감정적으로 별 요동이 없었던 같아요. 우리 둘의 관계가 편안할 때 입양을 신청했기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참여자 5(부) : 아내가 먼저 입양을 말했을 때는 반대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낳으면 되는데 생각했는데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입양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입양을 찬성하게 되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가정은 아들만 둘로 사촌들도 모두 아들만 있어서 딸을 낳을 자신이 없으면서도 딸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미 태어나 있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우리가 가정이 되어주고, 우리는 딸을 얻으면 좋겠다는 말에 찬성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결정이 필요할 때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대화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입양할 때는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가정은 나이가 40대에서 50대로 늦은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결혼으로 나이가 많은 것이 오히려 여유를 갖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입양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좋은 기반이 되었

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 다섯 가정 중 네 가정은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그때도 서로 힘든 부분을 배려하면서 이겨내고 입양으로 가족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한 가정도 유자녀 입양으로 2명을 입양했는데 둘이 충분히 상의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도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들은 입양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입양상담 과정에서의 심리현상

### 1) 도출된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을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들은 현상학적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양 부모들이 경험한 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35개의 구성 의미, 12개의 주제, 3개의 주제군이 도출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진술한 의미 있는 문장에 대한 연구자의 기술적 진술들이 포함된다. 도출된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은 다음과 같다.

<표IV-2> 도출된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

구성 의미	주제	주제군
1) 부부만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음 2) 아이 없이 둘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했지만	1)부족감	



<p>한쪽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음 3) 자녀가 있는 가정이 부러움</p>		
<p>4) 친생자를 포기할 수 없었으나 시술을 해도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인한 좌절감 5) 유산으로 좌절을 겪음</p>	2)좌절감	1) 입양 전 심리현상: “꽃을 피우다”
<p>6) 입양상담 받으며 아이 첫 선을 보던 날 보자마자 마음에 들 7) 아이가 집으로 올 것을 준비하면서 기대되고 설레임 8) 첫 번째 보여준 아이를 바로 결정하게 됨</p>	3)기대감	
<p>9) 아이와 함께 있어도 낯설고 어색함 10) 아이를 돌보고 놀아주는 것이 행복하지만 낯설음 11) 처음에 위탁모 같은 마음이 들 12) 내 아이구나 하는 마음에 만족스럽고 좋지만 어색함</p>	4)부모가 된 낯설음	2) 입양 직후 심리현상: “꽃잎이 지다”
<p>13) 아이가 옷깃을 꼭 잡는 순간 ‘내 아이구나’하는 감동이 됨 14) 예민하게 힘들게 하던 아이가 안아주니 내 품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가족으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하는 울컥함이 생김</p>	5)부모가 되어가는 감동	
<p>15) 아이를 안 키워 봤는데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들 16) 아이가 아플 때, 잠을 자지 않을 때 크게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생김 17) 아이가 이유 없이 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p>	6)불안감	

을지 몰라 난감하고 당황함		
18) 자조모임 참여를 통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 구나하는 안도감을 느낌 19) 입양부모들이 서로 정보공유와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 힘이 되어줌	7)안도감	
20) 예민한 특성과 발달단계가 늦어 양육스트레 스를 받음 21) 언어발달이 느려서 주위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 어린이집에서 전화 받음 22) 밤에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야만 잠을 잘 수 있어 밤에 부모가 힘들 23) 밤에 자주 깨고 엄마를 찾아 안쓰러움 24) 기다리던 아이였지만 사생활이 없어진 느낌, 우울할 때가 있음	8)양육스트 레스에 따른 우울감	3)입양 후 심리현상 : “열매를 맺다”
25)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이 없었음 26)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자신이 없음	9)자신감 저하	
27) 부모가 되었다는 성취감을 느낌 28) 가정에 자녀가 있어 뭔가 만족감과 해냈다는 성취감	10)성취감	
27) 입양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 까 두려워함 28) 입양사실을 말하긴 해야 하는데 자꾸 뒤고 미루게 돼서 아직 말하지 못함	11)입양사실 공개에 따른 두려움	

29) 입양하고 가족관계가 유하고 부드러워졌음 30) 아이 때문에 즐겁고 분위기가 활기 있어짐 31) 아이로 인해 가족이 모두 행복감을 느낌 32) 나의 성장이 아이의 성장임을 알게 됨 33) 한명 더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34) 입양은 가족을 만드는 방법임을 알게 됨 35) 입양을 통해 가정이 필요한 아이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됨	12) 행복감	

구성의미는 부모들의 진술 중에 의미 있는 진술들의 공통점을 진술한 것이다. 구성 의미의 35개에서 다시 공통적 심리 현상을 12개의 감정으로 구성하였고 12개의 감정을 3개의 주제군으로 구성하였다.

3개의 주제군은 입양 전, 입양 직후, 입양 후로 나누었는데 입양 전 주제군의 부제는 ‘꽃을 피우다’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이 꽃을 피울 때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표현이다.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목마름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 후에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입양 직후의 주제군의 부제는 ‘꽃잎이 떨어지다’로 표현했는데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잎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과정이다. 자신의 일부분을 과감하게 희생하고 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입양 직후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혼란스럽고 힘들어 하면서도 기쁜 상태를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표현했다고 보았다.

입양 후의 주제군의 부제는 ‘열매를 맺다’로 표현했는데 현실에서 양육이 어려움으로 자신감 저하와 불안감, 두려움이 나오지만 동시에 안도감, 성취감, 행복감 등이 함께 있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며 열매를 맺음으로 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Ⅳ-2>에서 볼 수 있듯이 입양상담 과정에서 공개입양 부모들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양면을 동시에 느끼면서 부모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면서 아들러가 주장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삶의 원동력으

로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사용하여 입양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다. 입양 전과 입양 직후, 입양 후의 심리 현상의 변화들이 있다.

## 2) 입양 전 심리현상: ‘꽃을 피우다’

입양 전 심리현상을 ‘꽃을 피우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통의 순간을 견디며 살기 위해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입양 전 심리현상도 출산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입양을 결정함으로써 보상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 (1) 부족함

참여자 D(모)은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결혼 전 자궁수술 했고, 46세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에 자녀 출산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신혼 3년 동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공허감, 허전한 감정을 느꼈다. 결혼하고 난 후 부부의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 공허함과 허전함이 생겼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했고, 둘만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 공허감을 느꼈다.

참여자 4(부) : 사랑이란 감정이 오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둘만 있으면 뻘하니까요. 아내가 제주로 와서 친구도 없고 저만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3년차에 제주도 환경에 갇혀있으니까 우울감이 있고 외로워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조금 다녔어요. 그래도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입양을 시도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C(모) : 아이가 없이 둘이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며 아이를 포기하기도 했었는데 한쪽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가정의 아이가있는 모습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좋아보이기도 했어요. 약간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아이를 향한 막연한 기대가 입양을 선택하게 한 것 같아요.

참여자 A(모) : 늦게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긴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요. 유산을 했을 때 많이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자연임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져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자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임신 경험을 하면서 자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기대감이 커지니까 좌절감도 커지고 자녀가 있는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부럽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부부 둘만의 시간이 행복하지만 자녀가 없다는 허전함과 부족감이 이 가정의 열등감으로 에너지원이 되었다. 부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필수적 요소라고 여기고 입양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 출산을 위해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며 자녀를 간절히 원했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입양을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입양을 결정하면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가 된다는 기대감과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입양가정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 (2) 원하는 자녀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 좌절감

참여자 A(모)은 결혼 후 1년이 안되어 임신을 했고, 유산을 경험했다. 임신을 해보았기에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친생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5년여 동안 9번의 시험관 시술과 4번의 인공수정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경험했다. 불임으로 입양을 하게 된 참여자 A(모) 달마나 부모가 되고자 결심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수년을 소비했다. 이렇게 입양 부모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 또 한다. 좌절감을 겪으면서 자녀를 향한 간절함은 더 커지는 것 같다.

참여자 C(모)는 결혼 후 자녀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5년 정도 부부만 지냈다. 그 후 임신을 시도하면서 좌절을 겪었다. 시험관 시술을 3번 시도하고 나서 남편이 권유하여 입양상담을 받고도 오랫동안 고민했다.

참여자 A(모) : 친생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또 생길 것 같고 남편과 똑 닮은 내

자식을 낳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난자 배아가 건강하고 좋다는 소견을 들으니 더 멈출 수가 없었죠. 자연적으로도 임신을 했으니 시술을 하면 임신이 될 것 같아 힘들어도 계속 시도했지요. 5년 정도는 친생자를 임신하기 위해 시도했어요. 재정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었어요. 남들에게 이 과정을 다 말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꼭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참여자 C(모) : 33세에 결혼하고 ‘나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5년 정도 지내다 아이를 가지려하니 임신이 어려웠어요. 38세에 시험관아기 시도를 3번 했지만 실패하고 40세가 지나서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B(모) : 결혼 후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기쁘고 좋았어요. 40대에 결혼해서 아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임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유산이 되고 좌절을 겪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입양을 하려고 할 때 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연구 참여자 중 세 가정은 결혼이 늦은 편이고 결혼하면서도 임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 후 예상치 않게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경험한 두 가정은 그 이후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 세 가정은 아이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도 가진 적도 있고, 참여자 A가정은 인공수정 4번, 시험관 시술 9번의 시술을 하는 5년여 동안 친생자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친생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양을 결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자녀가 없는 상태를 수용하려고 애를 썼지만 가족이 되는 새로운 방법인 ‘입양’을 선택하게 되었다. 좌절감을 느끼는 시간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었다. 주로 아내가 감정표현이 많아서 힘든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지만 남편도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힘들고 자신도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면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돕고 지지하면서 가족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보게 되고 입양상담을 받게 되었다.

입양상담과정동안 여러 가지 검사와 면담, 상담이 진행 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열등감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 극복

해내고 있다.

### (3)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연구 참여자 가정은 가족이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난임과 유산으로 실망과 좌절을 겪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정의 자녀를 향한 기대감으로 입양을 선택하고 입양상담을 받게 되었다. 입양상담 과정에서 서류제출이 힘든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입양상담과정의 첫 관문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서류제출은 재산검증, 심리검사, 중독여부, 가족관계 등등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가정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했다. 재산이 증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심리검사 과정도 영혼이 털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전에 해보지 않았던 과정을 하면서도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컸기에 서류를 제출, 부모교육, 아이 결정, 법적으로 부모 자녀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입양상담을 받으면서 부모교육 8시간 참석을 통해 여러 상황에서 입양을 결정한 예비 부모들을 만나 교체하면서 입양의 정보나 상황을 서로 나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자녀를 향한 간절해지는 경험을 한다. 실제적인 입양의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아기 용품과 아기 물건, 놀잇감 등등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다. 출산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전 아기 물건을 사고 물품을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감정과 비슷한 것이다. 실제적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에 아이가 오는 구나를 실감하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자 A(모) : 입양상담을 하면서 서류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별의 별 서류를 다 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거 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재정증명,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등 평소에 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첫 선을 본 날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 사진을 볼 때 너무 기대감 없이 가서인지 여자아이가 피부도 뽀얗고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이 아이구나 했어요.

참여자 B(모) : 아이 첫 선을 볼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는데 아이가 생각나고 남편이 아이가 왜 나를 닮았지 하는 거예요. 저희는 첫 번째 보여주는

아이를 바로 결정하기로 하고 만나러 갔거든요. 아이를 상품 선택하듯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여주면 그 아이로 결정하려 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보고 아낀 이유는 없었어요. 첫선을 보고 일주일 만에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참여자 D(모) : 아이가 집으로 올 것을 준비하면서 설레고 행복했어요. 아이 물품을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할 생각에 여러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아이가 왔어요. 아이가 오고 나서는 정말 잠을 못자는 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는 만족감과 감사가 컸고, 아이를 보는데 정말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입양을 결정하고 서류제출과 부모교육을 받고 첫 선을 보고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향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 감을 알 수 있다. 출산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아이가 가정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입양상담을 받고 준비해야 할 아이의 물품을 준비하면서 실제적인 기대감이 생긴다.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막연한 기대감에서 실제적인 책임감과 기대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입양 직후 심리 현상: ‘꽃잎이 떨어지다’

입양 직후 자녀를 얻었지만 낯설고 희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키우는 입양부모의 상태를 꽃잎이 떨어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잎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1) 부모가 된 낯설음

연구 참여자 부부는 입양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기 때문에 아이가 오기만 하면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입양부모는 입양을 선택했으며 돌아볼 시간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 번 심사숙고했던 만큼 어떠한 도전도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가정들은 부모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고 기다렸지만 입양으로 아이가 집으로 왔을 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과 역할이 낯설고



어색함을 느꼈다. 임신과 출산을 거쳐 아이가 탄생하는 가정은 아이와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낸다. 입양가정은 아이와 첫 선을 보고 난후 5-6개월 후 위탁가정으로 온 후에 법적으로 친자로 입양 결정이 난다.

신생아가 가정에 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자녀 출산 경험이 없는 가정에서 신생아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은 새롭기도 하지만 낯선 과정이다. 신생아가 가정에 오면서 엄마로 호칭되는 것도 낯설고 어색해 한다. 아이도 가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모도 아이가 심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참여자 C(모) : 아이를 보면 너무 조그맣고 예쁜데 울고 잠을 자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재우고 나면 빨래와 청소를 해야 하고 아기 물건이 왜 이리 많은지 집 분위기가 아이 것으로 가득 찬 느낌이에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이아기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구나하는 마음이 들면서 행복하기도 한데 어색하고 낯설더라고요.

참여자 D(모) : 처음에는 위탁모 같았어요.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내가 엄마구나’ 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 순간 자각하게 되요. 요즘은 내가 입양하기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부) : 내 아이구나 하는 마음에 만족스럽고 좋았어요. 그래도 아가를 돌보고 돌아주는 것은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했죠. 내가 아빠구나 하는 느낌이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힘도 나게 해요. 그래도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 “아빠가 좋게” 하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참여자들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단어임에도 낯설고 어색했다고 했다. 그리고 부모로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함과 어려움을 반복하면서 서로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지면서 점차 낯설음과 어색함이 사라진다고 했다. 출산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임신의 과정 속에 10개월 동안 아빠, 엄마로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입양으로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는 아이가 집에 온 후 적응의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위탁모로 봉사할

동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 참여자 B(모)는 처음에 그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엄마구나 내가 이아이의 엄마구나”를 인식하게 되고 적응하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되었다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감사하기도 하고 아이가 잘 자라줄 때 행복하기도 한 부모가 되었다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

## (2) 부모가 되어가는 감동

참여자들은 입양아동들을 돌보면서 내 아이구나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고 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순간들이지만 입양부모 입장에서 아이와의 소통을 할 때 감동처럼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하는 감동의 순간을 만나고 더욱 유대감이 깊어지고 엄마가 되어간다고 했다.

참여자 E(모) : 아기 손이 바들바들 떨면서 내 옷깃을 잡았어요. 나를 꼭 쥐는 아이를 보는데 ‘내 엄마가 되어 주세요’ 하는듯한 감동이 왔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하는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내 옷깃을 잡을 때 그 때의 마음이 저에게는 몽클하게 다가왔어요.

참여자 C(모) : 둘째 입양을 하려고 입양기관에 진화를 했는데 첫째 입양했을 때 복지사님이 정말 입양하시겠어요? 하고 질문하시면서 첫째 입양한 여아의 생모가 같은 남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아를 입양하겠다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사실 여아를 하고 싶었는데 생모가 같다는 말씀에 남아를 입양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놀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 않았는데 둘은 생모가 같아서 선천적인 영향이나 신체적 조건들이 비슷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 D(모) : \*\*가 10개월까지 예민해서 처음에 마주보고 안지도 못했거든요. 마주보고 안으면 울어서요. 그래서 돌려서 안았어요. 근데 10개월 때 비행기를 타면서 마주보고 안았는데 마주보고 안아도 울지 않더라구요. 이때 “이 어린 것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어요. “어려도 다 알고 있구나”

공개입양 가정은 자녀가 오고 난 후 어색함과 낯설음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이 부모가 되었다는 감동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부모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자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원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막상 자녀가 집에 있고 돌봐야 할 때 처음 돌보는 일이기에 어색하고 낯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로서의 감동을 느끼게 된다.

입양 가정은 만난 후 서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에 가족 모두와 각각 새로운 가족으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아이의 특질이나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의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 4) 입양 후 심리현상 : ‘열매를 맺다’

입양 후 부정적, 긍정적 감정으로 인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를 입양함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열매를 맺다’는 의미로 보았다.

##### (1) 양육에 따른 불안감과 안도감

연구 참여자 가정은 늦은 나이에 입양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감이 있고,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기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선천적으로 아이의 특성이 나타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나 하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출산으로 인한 가족형성이 아니라 입양으로 인한 가족형성이기에 선천적인 건강의 문제가 나타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출산으로 인한 가족형성도 자녀 양육을 하면서 불안감을 갖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입양으로 인한 가족은 늦은 나이 입양함으로 체력적인 한계나 선천적인 건강의 문제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양가족의 자조모임을 통해 다른 가정의 아이의 성장을 옆에서 보면서 안도감을 갖기도 한

다. 입양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공개입양에 대한 의미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면서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다. 나와 같은 조건의 가정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도움을 받는다.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공개입양가족을 이루어 가고 있다.

참여자 D(모) :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안 키워 봤는데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주변반응은 ‘뭐 둘이 편하게 살지 뭐 아이를 입양하나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친척들 중 예는 자녀들이 다 컸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잘하고 있나? 알 수가 없어서 불안했어요.

참여자 C(모) : 아이가 아플 때, 잠을 자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난감하고 당황했어요. 육아에 대한 책도 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그래도 아이마다 다른 거라 도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냥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릴 때도 많았어요.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을 때도 긴장 되고 어려웠어요.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가 긴장도 더 크고 마음도 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 체중 이에요. 잘 안 먹어서 힘들어요. 조그만 많이 먹으면 토할 때도 있고 많이 먹지 않으려고 밥 먹을 때 먹이는 게 힘들어요.

일반가정에서도 첫아이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을 갖는다. 입양가정이 일반가정과 다른 어려움이라면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아이와의 유대감을 갖는 것과 선천적인 기질이나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 자원인 한국입양홍보회(MPAK) 모임에 참석하며 입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편엔 입양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모임을 꾸준히 참석을 하면서 아동도 다른 입양아와의 교체와 교우관계를 갖게 하고 부모들도 함께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부모들보다는 자녀들이 입양 또래 친구들을 통해 입양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여자 E(부) : 입양모임은 꾸준히 참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위해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도 다른 가정의 부모들과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육아에 대한 배우는 것들이 있어 좋아요.

참여자 D(모) : 입양모임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고민을 나누기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요. 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고 아이가 또래 친구를 통해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입양모임을 좋아하게 되니 모임에 나가게 되네요.

참여자들은 자조 모임을 통해 입양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다양한 세미나나 교육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양으로 인한 가정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들에 대해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는 ‘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룰 수 있구나’를 수용하고 배우게 된다.

한국입양홍보회 (MPARK)에 속한 제주 자조 모임은 1년에 1-2번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입양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분기별 세미나나 부모교육 등을 진행하여 입양가정의 심리적인 부분과 양육 부분을 돕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들끼리 또래 모임을 진행하며 자녀들이 서로 친해지며 새로운 활동을 하기도 한다.

입양한 자녀가 청소년이 되었거나 대학생이 되는 시기에 있는 아동은 선배처럼 또는 언니 형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입양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 혈연사회에서 입양아는 조금은 다른 것처럼 보는 편견을 스스로 형성한 정체성을 통해 이겨나가며 가족이 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의 입양을 사회에 몸소 보여주고 있다.

공개입양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안감과 안도감을 이시기에 함께 느끼면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공개입양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올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안심이 된다고 표현했다.

## (2) 양육 스트레스와 성취감

양육의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어려움으로 호소할 수 있다. 공개입양 부모들은 입양아동의 성격이 까다로울 경우 피로감과 무기력감,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입양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이 양육하는데 커다란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양육에 따른 피로감과 무기력감, 우울감도 느끼면서 자녀를 안은 행복감도 함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중심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 신생아를 양육하게 되면 그동안 편안하게 부부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던 것이 자녀 위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아이를 위한 시간만 있는 것 같아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시간을 거쳐 행복함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A(모) :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자꾸 엄마를 찾아서 안쓰럽고 힘들어요. 지금 28개월인데도 지금도 밤에 자주 깨고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일하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를 자꾸 꼬집고 무는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 적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자꾸 어린이집에서 전화 올 때 속상해요.

참여자 E(부) : 첫째 아이 입양했을 때 집에 오자마자 밤잠을 저녁 9시에 잠을 자서 아침7시 까지 잤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입양 할 때 더 쉽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2시간마다 1번씩 깨서 돌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불빛이 있어야만 잠을 자서 불을 켜고 자고 노래도 틀어줘야 잠을 잤어요. 밤에 잠을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참여자 3(모) : 첫째 입양 후 육아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둘째까지 입양하니 지치고 힘든 게 누적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따라다니고 돌보면서 순간순간 화가 났어요. 체력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저의 사생활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기다리던 아이였지만 저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삶이 멈춰진 느낌, 나는 어디 갔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여자 E가정의 입양 아동은 혼자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와 함께 자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불을 끄면 잠을 못 자고 불을 켜고 자야만 하기에 부모가 어려움을 겪었고, 참여자 C가정의 입양아동은 음식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 토

하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아 지금도 고생을 겪고 있다. 참여자 A가정의 아동은 지금도 밤잠을 길게 자지 못하고 중간에 깨서 엄마가 잠을 못 잤다고 호소했다. 아동의 까다로운 특성은 아이의 선천적인 기질인 경우도 있지만 입양아동이 주 양육자로부터 또 다시 분리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분석된다.

참여자들 중 2명을 입양한 참여자 C가정은 첫째 입양과 둘째 입양으로 양육기간도 길어지고 아이의 까다로운 특성 때문에 지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 아이로 인해 행복할 때도 많지만 잠깐 잠깐 나는 어디 있나? 하는 자신이 멈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은 출산을 통해 가정을 이룬 부모들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출산 후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자녀만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감, 무기력감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입양가정도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원했다고 해도 육아는 어렵고 지치는 힘든 과정인 것이다. 특히 예민한 기질이거나 잘 먹지 못하는 특성을 가졌거나, 언어발달이 늦어져서 또래와 어울림이 어려울 경우에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힘들고 어렵지만 아동의 고유한 특질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돌보면서 아동과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들면서도 부모가 되었다는 행복감을 함께 느끼면서 부모가 되어가고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울감만 느끼고 그 감정이 지속된다면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겠지만 우울감도 있지만 그 감정을 희석할 수 있는 행복감과 유대감이 함께 있기에 가족 형성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양면의 감정을 느끼면서 서로 친밀해져가고 가족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입양 부모는 자신이 부모가 되었고 이 아이가 내 자녀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부모가 된 감사와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자신감이 저하되어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과 부모가 된 감사와 성취감을 양면으로 느끼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 하면서도 무엇인가 해냈다는 뿌듯한 성취감도 함께 느끼면서 자기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 가정의 대부분은 주변 지인들과 친척들보다 나이가 많고 자녀들 또래가

없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자녀들은 장성했는데 참여자 가정은 이제 아이가 3-4살이어서 의논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부부가 결속해서 둘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D(모) : 아이를 안 키워봤는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첫 번째였어요. 내가 잘 키우고 있나? 이렇게 키우는 것이 맞나? 내 친구들은 벌써 다 키웠고 주변에 내 나이 또래 엄마는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먼저 입양하자고 이야기 하긴 했지만 막상 하려고 할 때는 두렵고 망설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음먹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마음으로 결정하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끌어갔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니 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B(모) : 저는 2012년 결혼해서 2018년에 입양을 했는데 6년 동안 유산의 경험도 있고 아이를 기대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을 했어요.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시도하기가 두려웠어요. 엄마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엄마와 불안정애착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정서적으로 엄마가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부담과 어려움이 따른다. 아이의 특성이나 성향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처음으로 배워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는 긴장이나 불안을 느끼며 잘 키울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 주변의 보는 시선들도 입양 부모들은 신경을 쓰게 되고 버거운 양육을 시작하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자신감도 저하되어 어렵지만 이 시기를 가족들이 서로 도와가며 이겨나가면서 서로 유대감과 동질성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아이도 부모에게 부모도 아이에게 적응되어 가면서 서로 끈끈해지고 결속이 생긴다. 지금은 신생아 양육에서 벗어나 이제 적응할 만한 시기가 되어 현재 그 때를 떠올리면 그 때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는 기쁨이 더욱 커진다고 표현한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40-50대에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기에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육체적인 움직임이 많고 영, 유아기 때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돌봐야 하는 부분이 많아 양육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많은 활동을 요구하기에 체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입양 부모들은 대부분 친자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난 후에 입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가 많은 편이고, 유자녀 가정 입양도 대부분 자신의 친자가 최소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자란 후에 입양하기 때문에 입양 부모들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참여자 D(모) : 입양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나이가 많아 체력적인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어요. 원래 체력이 약한 편이어서 늘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보면서 제 팔목과 어깨가 아파서 지금도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놀아주는 것은 힘들어서 남편이 주로 해주고 있고 체력적인 한계가 계속 부담은 되요. 둘째도 입양하고 싶은데 체력이 감당할 수 있을까는 마음이 있어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어요. 아이를 보면 한 명 더 하고 싶은데 저의 체력을 생각하면 못할 거 같거든요.

참여자 B(부) : 저는 둘째 입양하는 것이 조금 주저 하게 되요. 입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적인 면과 체력 등을 생각할 때 조금 염려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만류는 못하고 있고, 저도 해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참여자들은 입양 자녀를 양육하면서 체력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부분의 자신감 저하와 부모가 된 성취감의 양면의 심리적 현상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입양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자신감이 저하 될 때가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서적으로 체력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자신감이 저하된다는 표현을 했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양육자의 끊임없는 신체적 보살핌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입양 부모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체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는 둘째 입양을 망설이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와 함께 입양모가 불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입양함으로 인해 부모가 되었다

는 성취감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유자녀 가정에서는 친자와 같은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입양 사실 공개에 따른 두려움과 행복감

공개입양 부모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 남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다. 실제로 입양을 공개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다. 그러나 입양 부모도 아이에 관해서나 입양 시의 상황, 친생부모에 대해 말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다(Lois R. Melina, 1998).

입양 사실을 언제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가와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 참여자 A, C, D가정 가정은 입양공개 시기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입양아동에게 입양 사실을 말해주기 전과 말해주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신생아를 입양한 참여자들은 아이에게 입양 사실과 친생부모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또 언제 해줘야 할까? 늘 고민한다고 하였다. 아동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서서히 조금씩 공개를 위해 노력과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공개입양모임에서 권장하는 공개 시기는 만 4-5세부터이다. 자녀가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양된 사실을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주로 자조 모임에서 입양 사실을 공개한 가정에서 조언하는 것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주 입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표현하게 도움을 주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가정 중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부모가 꺼려하고 사용하기 힘들어 하는 가정도 있었다.

참여자 D(모) : 비밀 입양이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실을 공개해야 될지 고민 이예요. 남편은 될 수 있는 한 늦게 공개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자고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데미지가 적을 것 같기도 해서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렵고 걱정 되요.

참여자 E(모) : 6살 된 제 딸아이 체육대회를 참여했는데 친구가 제 딸을 소개하면서 가족에게 주어진 아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제 딸은 친구에게 “ 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입양된 거야”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는 내심 충격이고 놀랐어요. 그렇지만 계속 자조 모임을 통해 미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 대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아이와 아이 엄마와 따로 만날 상황이 되었을 때 “가족이 되는 방법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입양으로 가족이 될 수 있어. \*\*는 버려진 게 아니고 입양을 통해 내가 엄마가 되었어. 다음에는 주어진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말해주었어요. 딸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 다음 부터는 주어진 아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를 위해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자신 출생에 대해 언젠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실을 알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에요.

참여자 B(모) : 사실 아직도 저는 문득 문득 딸의 성장을 바라보며 행복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앞으로 \*\*이가 이겨나가야 할 삶의 고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쓰럽거든요. 입양됨의 사실을 받아들이며 성장해 가야 할 과제를 건강하게 잘 도와주고 싶기 때문 이에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힘을 가진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지지해 주고 싶어요. “\*\* 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입양 사실을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녀가 입양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가정은 참여 가정 다섯 가정 중에 두 가정 있었고, 세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입양이란 단어와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생모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로없이 하고 있었다.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입양 부모 입장에서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입양에서 생모에 대한 부분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양 부모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자녀에게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자녀를 도울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입양 부모는 아이와 입양이야기를 하려면 불임이나 친생부모가 왜 입양을 보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는 입양인의 경험을 읽거나 배우자, 다른 입양 부모와 대화해 보면서 이를 준비할 수 있다. 입양에 대해 말할 때 부모가 불편해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다시는 이런 문제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고, 긴장이 생기는 이유가 입양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입양 사실을 처음 듣는 위험을 피하고 사랑 가득한 분위기에서 입양 사실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다.

연구 참여자 가정들은 입양아동으로 인한 가정의 변화와 행복감이 있지만 동시에 입양을 공개하려고 하면서 오는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구들의 반응에서 ‘주어진 아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을 마주할 때 적절하게 자녀에게 설명하고 또한 자녀 친구와 부모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공개입양 부모가 사회에서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3. 공개입양상담과정의 의미

#### 1) 부부 상호보완

공개입양 부모는 입양상담을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진행해 가면서 다양한 심리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유자녀 가정의 입양은 이미 친자가 있고 자녀 양육의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입양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가족을 만들어 가고, 무자녀 가정의 입양은 친자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시도하면서 좌절과 고통을 겪은 후 입양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족을 만들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의 소통과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랜 시간 자녀 출산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하고 난임 치료와 불임 진단을 받을 때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부부는 더욱 깊은 어려움과 좌절에 빠지고 입양을 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지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 현재의 상황의 자녀가 없는 것, 자녀를 원했지만 친생자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입양을 선택할 수 있었다. 공개입양 부모의 열등한 부분 즉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힘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보상의 과정으로서 입양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A(모) :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이를 임신해서 기뻐요. 그러나 유산을

하고 그 후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등 시술을 9번 시도하고 5년 동안 친자녀를 위해 애를 썼어요.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꼭 아이가 생길 것 같아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다려 주는 남편도 고맙고, 재정도 시술에 사용하게 해준 것도 고맙았어요. 할 수 있는 데 까지 했지만 안 되는 것을 알고 입양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내 마음을 먼저 배려해줘요. 고맙죠.

참여자 A(부) : 내 입장에서는 중도포기 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시험관아기를 시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고 기다려 주었어요.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입양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먼저 입양하자고 할 때 입양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D(모) : 아이 첫 선을 보러갔을 때 내가 봐왔던 아가들이나 조카들은 토실 토실했는데 \*\*는 예쁜 아기가 아니었어요. 귀엽지도 않고 토실토실하지 않았어요. 내 기대와 달라서 덤석 아이를 안거나 좋아하지 못했어요.

참여자 D(부) : 저는 처음 봤는데도 예쁘고 내 딸이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선택 할 때 이거저거 따지면 반대로 아이입장에서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우리를 선택 했겠냐 그 아기가 우리를 부모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고 이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내도 딱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집에 온 후에는 아내가 더 좋아해요.

부모 모두 심층 면접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신중함과 진중함이 있었다. 절박함으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을 신중함과 진중함으로 결정하고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선택을 하며 입양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특유의 담담함과 냉담함이 있지만 어머니 특유의 따뜻함으로 서로 상호 보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성향, 다른 관점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입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의 다름이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의 보완의 요소로 사용됨을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호보완은 가정의 출발에 좋은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입양아동을 선보러 가는 장면에서 예비양모가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서 덤석

안지 않을 때, 무덤덤할 때는 예비양부가 적극적인 선택으로 우리 아이구나 하면서 아이를 안고 좋아하면서 집에 와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자연스럽게 예비양모도 아이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욱 입양아동을 좋아하고 자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공개입양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머니의 어려움을 아버지가 도와주고 함께 하는 공개입양가정의 연구 참여자 가정의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 가족의 결속

공개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가족은 자녀로 인한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적응을 하게 된다. 첫 자녀가 생긴 공개입양 부모는 처음 겪는 여러 가지 변화에 당황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또한 양육에 대한 어려움으로 체력의 한계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나 하는 불안감, 공개입양을 한 부모가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려고 할 때 자녀가 잘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겪는다. 그러나 그와 함께 부모가 되었다는 성취감과 행복감,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변화와 함께 가족끼리 결속을 경험하게 된다. 친정과 시댁에 새로운 가족이 생김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입양은 가정 안에서 가족됨을 이루는 것이므로 입양 모 혼자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닌 입양 부모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감당해 가야 하는 가족 되어가기 과정이다. 그러므로 가족관계가 입양으로 인해 돈독해지고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가게 된다. 입양으로 인해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참여자 D(모) : \*\*이가 입양된 후 가족관계가 유해지고 부드러워 졌어요. 둘만 있을 때는 남편이 컴퓨터를 주로 하며 자기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서로 각자 있어서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아이 때문에 즐거워요. 아이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많이 웃게 되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시댁을 방문하면 시부모님께서 먼저 \*\*를 안고 좋아

하셔서 분위기가 좋고 활기가 있어요. 친정 엄마와는 아이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은 친정엄마의 엔돌핀이예요. 외할머니와 화상통화하면 \*\*이가 춤을 춰요. 요즘 하나 더 입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요.

참여자 A(부) : 시댁식구들 제삿날이라고 모여도 텔레비전만 보고, 형님 내외분이 말 한마디 거의 안하시는 스타일이예요. 나이 차이도 나고 해서 늘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양하고 나서 얼마나 \*\*을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1년에 한번 우리 집에 올까 말까했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보러 오시곤 해요.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거든요. 시어머니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4층 계단을 오르내리시며 \*\*를보러 오시는 거예요. \*\*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댁식구나 친정식구 모두에게 기쁨 이예요.

참여자 B(모) : 명절에 본가에 간 \*\*는 모두의 기쁨이 되어 주었어요. 이미 큰조카들과 친척들에게 \*\* 은 인형이자 장난감처럼 모두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웃음 일이 크게 없는데 아이 한 명이 주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 우리의 무미건조한 명절을 환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어 너무 고맙네” 라고 형님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생김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긍정적이다. 분위기가 활기차고, 서로 데면데면했던 사이가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많아진 것이다. 아이 한 명이 주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가족, 친척들이 아이 한 명으로 인해 서로 돈독해지고 즐거워졌다. 소중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생명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족을 넘어 친척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가족행사를 참여할 때 이전과 다른 분위기에서 부모가 된 감동과 감사를 느끼게 된다. 입양하길 잘했구나 입양으로도 가족을 이룰 수 있구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다. 80세가 훨씬 넘은 시어머니가 4층 계단을 오르 내리시면서도 손녀를 보러 오셔서 보시고 가는 광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으시면 그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든다. 형님네 자녀들은 이미 컸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녀가 생겨서 마음이 뿌듯하고 좋으신 것이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가족의 결속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 3)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되기

연구 참여자 가정은 모두 입양을 통해 가족 되기를 경험했다. 입양은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입양은 결정되는 순간이 있지만 결정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있지만 가족이 되는 방법은 결혼, 출산과 더불어 입양이 포함된다. 결혼할 때도 혈연관계 없는 남녀가 만나 법률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처럼 입양도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가 법률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여자 가정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함께 살면서 서로 부모가 되어가고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입양이다.

연구 참여자 가정은 연령대가 높은 편으로 40대에서 50대이다. 50대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체력적으로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얻으며 이전보다 더 활기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다. 주변의 지인들은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입양을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입양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좋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 A(부) :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다가면 다들 부러워해요. 동네에 나이든 총각들이 많은데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결혼이 늦어져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보면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자기들도 결혼하면 입양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둘째 입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둘째까지 입양을 하면 우리가족이 4명이 되네요.

참여자 E(모) : 처음에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의 반응과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는 모두 축하한다고 모두 기뻐 해주셨는데 제가 입양을 한다고 하니 “아이가 커서 자기 부모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할거냐? 키워줘도 소용없다 ” 등등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입양하고 아이를 안고 보니 저는 제가 낳은 아이와 감동이 같더라구요. 소중한 귀한 아이를 제가 입양했구나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들만 키우다 딸을 키우니 아기자기 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둘째도 여아를 입양  
했죠. 저의 아들들도 딸아이들을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아들들에게도 좋고 저희도 좋은 것 같아요. 아들 둘, 딸 둘 든든하고 좋아요. 입양  
하길 잘했죠.

연구 참여자 가정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양육의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볼 때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로 인한 감사와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가족으로서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되고 자녀로 인해 부모  
가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입양아동은 부모와 가정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입양했어도 가족이 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또한 입양한 사실을 공개하고도 가족 됨은 변함이 없다. 함께 하는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입양한 것도 사실이고 가족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랑과 감동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이 연구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은 입양상담기간 동안의 심리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입양 전과 입양 후 사후 서비스까지의 과정을 공개입양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를 함께 심층 면접하고 연구한 결과 부부가 부정적, 긍정적 양면의 감정을 느끼며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가정의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현태욱, 2004)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부분이 컸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서로 부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입양상담에 임하고 공개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가는 과정의 심리 현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상반되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서 입양상담에 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부족감, 좌절감 등과 기대감이 함께 드러나고, 불안감과 안도감, 자신감 저하와 성취감, 입양 사실 공개에 따른 두려움과 책임감 행복감등이 함께 드러났다. 일반가정에서도 자녀가 출산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잘 성장할까?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까? 등등의 불안감이나 자신감 저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모가 되었다는 감동과 행복감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양면의 감정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서로 상호보완하면서 가족이 되어가고 가족으로서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권지성, 2003)에서 국내 입양가족의 부모들도 입양아동과 같이 아동을 인정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두려움을 경험하다고 했다.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이현정(2002)은 입양 부모 양육

경험을 입양형태에 따라 사례분석을 하였고 입양 형태에 따른 입양의 동기와 양육과정에서의 장·단점을 통해 입양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현태옥(2004)의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에서 입양가정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를 드러나게 함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양육의 두 주체 중 주로 어머니의 양육체험만을 담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초기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양면의 감정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좌절감, 불안감이 기대감과 같이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함께 공존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성장과 새로운 가족됨을 이루고 성취감과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연구하므로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상호보완하면서 입양상담 과정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입양 전에 예비 입양 부모들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기에 이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 연구로 입양 전과 입양 후 공개입양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살펴본 것이 의의가 있다 하겠다.

## 2. 결론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부부간의 상호보완과 가족의 결속과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됨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입양상담을 진행하면서 입양 전, 입양 직후, 입양 후 자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었다. 입양 전에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과 부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부족감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양 직

후는 기대하던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로서의 낯설음과 부모가 되어가는 감동이 공존했다. 입양 후에는 불안감과 안도감, 자신감 저하, 우울감과 성취감, 입양 사실 공개에 따른 두려움과 행복감을 느끼며 그 결과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공존하지만 원하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입양이라는 보상의 과정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고 우울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입양 부모가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를 갖으며 가족의 결속을 이루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되기를 경험하고 있다. 입양상담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났다. 입양 후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은 아이로 인한 부부 공통의 관심사가 생겨 대화가 많아졌고, 아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남편이 육아와 가사 일을 도와주고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다독여 줌이 신선한 사랑으로 느껴져 부부의 친밀성과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어졌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좀 더 안정된 마음이 되도록 배려와 격려하는 것과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엄마가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기에 아빠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참여자 가정이 많았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통해 부부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자녀로 인해 친척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되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신중하고 어머니는 감정적일 때도 서로 기다려 주고 도와주면서 상호보완의 관계를 맺음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자녀를 지지하고 어머니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서로의 위치에서 상호 보완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결속이 자녀 양육의 좋은 바탕이 되어주고 자녀로 인해 친인척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도 갖게 되어 입양을 경험하면서 사회에 요보호아동에 대한 돌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의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공개입양을 통해 사회적 인식에 대한 편견과 맞서야 하고 자기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하는 필요가 있기에 세미나 참석이나 자조 모임 참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도 받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입양 부모 자조 모임이 공개입양 부모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사회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개입양 부모는 자조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와 소통을 원활히 하며 세미나 참여와 소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려고 하는 특징을 드러냈다.

또한 자조 모임 참여를 통해 우리 가정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기도 했다. 입양 사실을 자녀에게 공개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입양 사실 공개와 친생부모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두려워했다. 아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했지만 연구 참여자 B, D, E 가정은 자연스럽게 공개함으로 자녀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공개한 가정도 있다.

입양 부모가 공개입양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공개입양을 했음에도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순간은 입양 부모 모두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혈연사회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넷째 공개입양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했다. 연구에 참여한 입양 부모들은 입양한 것에 대해 모두가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불임 입양가정의 입양 부모들은 부모가 되었다는 성취감으로 부모가 되어 행복하다, 내 자신이 엄마라는 현실이 가끔은 흥분되며, 자신에게도 자녀가 있다는 것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을 통한 기쁨이었다.

또한 자녀가 내 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자녀와 함께 나가면 자녀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 유자녀 가정 입양에서는 아들들만 있을 때와는 다른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아이로 인해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다. 자녀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 가족이 되었다는 흡족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이라고 하였다. 공개입양가정은 부부의 상호보완을 통해 부정적 긍정적 감정의 공존의 심리 현상을 느끼면서 가족의 결속과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 되기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가정은 임신과 출산을 통한 혈연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가정이며 다양한 가정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개입양 가정을 사회에서 수용과 지지가 필요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개입양가정에 자녀가 겪는 정체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방법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진다면 공개입양가정의 입양아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이 연구를 바탕으로 공개입양 부모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지원되어지길 바란다. 자녀 양육을 위한 입양 부모에게 심리적 지원들이 있을 때 요보호아동들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입양성립 후 사후 관리에서 자조 모임은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조 모임을 통한 구체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나, 활동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입양 후 입양아동의 성장 단계별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심리상태, 양육방안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음으로는 이 연구의 대상 설정과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입양홍보회’소속으로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개입양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혹은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공개입양 부모 모임에 전혀 참여 경험이 없는 공개입양 부모의 경우에까지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과정 중에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에 주목했기에 입양기관의 상황이나 법률적 절차에 따른 입양상담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셋째, 공개입양 부모를 함께 연구 참여자로 면담을 진행했지만 공개입양 아동이 만 4세 미만이기 때문에 입양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그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공개입양이라는 사실이 입양 부모의 심리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

## 참고 문헌

- 강다선 (2010). 입양 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록이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 효능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이론. 학지사
- 권정희 (1994). 아동 복지를 위한 가족 관계법의 내용과 과제. 가족법연구 8, 120-121
- 권정희 (1997) 아동복지와 한국의 입양법. 가족법연구 11, 683-696.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08).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 한국 가족복지학 23, 71-103.
- 권지성·변미희·안재진·최운선 (2008).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2차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입양홍보회.
- 김경아 (2002). 우리나라에서의 공개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분한 외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 고찰, 한국간호과학회 29(6), 1208-1220
- 김소미 (2011). 입양가정의 가족적응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외선 (2012). 불임여성의 입양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제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천 (2013). 질적 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화 (1997). 영아기 입양아의 입양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안영·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학지사
- 박경련 (2007). 한국 사회에서의 입양 부모들의 입양 공개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9). 공개입양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입양모의 양육 행동과 입양모 - 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박순주 (2012).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미희 (2001). 공개입양가정의 현황.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 입양부모 대회자료. 한국입양홍보회.
-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6). 입양 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1차 조사 결과 보고서. 과천: 한국입양홍보회.
- 변미희·권지성·안재진·최운선. (2007).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1차년도 영유아 발달과 자아개념, 인지발달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1(3), 449-469
- 변미희·최운선·안재진·권지성 (2012).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 4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과천: 한국입양홍보회.
- 배태순 (1995). 입양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 107-126.
- 배태순 (1996).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아동복지 영유아시설 운영의 내실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4, 109-134.
- 배태순 (1998a). 국내 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입양법 개정 제안. 한국 아동복지학 7, 127-155.
- 배태순 (1998b).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 출판부
- 배태순 (2003). 입양발전을 위한 국내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영향력. 입문논총 16, 231-252.
- 보건복지부 (2004). 연간 아동복지 계획
-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2013).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나눔의 집
- 안재진역 (2004). 입양아동의 적응. 홀트아동복지회.
- 안재진·권지성 공역 (2006). 누가 진짜 부모인가. 서울: 학지사
- 안재진 (2008). 국내 입양가족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29, 187-219.
- 안재진·권지성·변미희·최운선 (2010). 공개입양가족의 입양 관련 의사소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복지학 31, 143-171.
- 안찬영 (2008). 국내 공개입양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병창 (2002).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가족법연구 (16)2, 169-202.
- 윤현선 (2002). 국내 입양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 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 적응력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02). 입양 형태에 따른 입양 부모의 양육 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용주 (2011). 한국인의 입양 인식과 입양 정책의 과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의숙 (2007). 국내 입양의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효정 (2008). 공개입양 가족의 입양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공개입양 어머니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채 (2008).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양서원
- 한국입양홍보회 (2000). 한국 입양가정을 위한 제 1회 전국대회 자료집
- 한국입양홍보회 (2002).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야기: 우리 집 입양일기
- 한국입양홍보회 (2004). 한국입양가정을 위한 제5회 전국대회 자료집
- 한국입양홍보회 (2020). 입양 수기 및 입양가족 사진 공모전 모음집:  
입양 더하기 사랑 곱하기 행복.
- 한기옥 (2004). 국내 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함혜란 (2010). 입양가정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역할 수행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외 (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천
- 현태옥 (2004).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재필 (2005). 국내 입양가족의 입양 방법에 따른 가족 적응.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ler, A. (1979)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New York: Norton & Company.

Berry, M. (1993) Risks and benefits of open adoption. *Future of Children* 3(1), 125-138.

Bradbury, S. & Marsh, N. (1988) Linking families in preadoption counseling: A family system model. *Child Welfare* 67(4), 327-335

Brodzinsky, D. M., Schechter, N. D.& Henig,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ew York Double day.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에 출판)

Descoteaux, B. C. (1994) Stress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d by Transcultural Adoptive Families, University of Rochester, Ed, D.

Grotevant, H. D & McRoy, R. G. (1998). *Openness in adoption: Exploring family connec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Hartman, A.& Laird, J. (1990). Family treatment after adopting: Common themes. In D. Brodzinsky & M. Schechter(eds.) *Psychology of adoption*.43-6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oopes, J. L. (1990) Adop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D. Brodzinsky & M. Schechter. *Psychology of adop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Hollinger, J. H. (1991) Introduction to adoption law and practice. In J. H. Hollinger(ed). *Adoption law and practice*. New York Matthew Bender

- & Co., INC.
- Kadushin, A. (1980)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Kathleen, J. B. (2015). *Raising Adopted Children*. Harper Collins Publishers.
- Kirk, H. D. (1984) *Shared fate: A theory and method of adoptive relationships* (2nd ed.). Port Angeles, Wa : Ben-Simon Publications.
- Melina, L. R. (1989). *Making Sense of Adoption: A Parent's Guide*. N.Y.: Harper & Row.
- Melina, L. R. (2009). 입양아 부모 되기 [Raising Adopted Children. Revised Edition: Practical Reassuring Advice for Every Adoptive Parent.] 이수연역. 서울: 궁리.(원전은 2002에 출판)
- Moustakas, C. E.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olkinghom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rch methods.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p. 41-60). New York: Plenum Press.
- Ryckman, R. M. (2000). *Theories of personality* (7th ed.). Belmont, CA: Wadsworth.
- Reitz, M.& Watson, K. W. (1992) *Adoption and the family system strategies for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okoloff, B. Z. (1993) Antecedents of American adoption. *The Future of Children* 3(1), 17-25.
- Winkler, R. C.,Brown, D. W., Keppel, M. V. & Blanchard, A. (1988). *Clinical practice in adoption*. Elmsford, NY: Pergamon Press.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 ABSTRACT

# Psychological phenomena experienced by parents in the process open adoption counseling

im-Soon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in - H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sychological phenomena experienced by open adoptive parents during the adoption counseling process. Therefore, to grasp the meaning of a psychological phenomenon until after the adoption before adoption. The study participants selected the parents of 5 open adoptive families. The selection criteria are families with one or more children who have open adopted children, participated in a self-help group of the Korea Adoption Promotion Association, and less than one year after adoption counseling ended.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study participants Data were analyzed statements from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pro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35 constructs, 12 subjects, and 3 subject groups were derived that subjectively interpret and explain the experiences of adoptive parents. Twelve themes were psychological phenomena, and three thematic groups were divided into pre-adoption, post-adoption, and post-adoption.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psychological phenomena were divided into pre-adoption, immediately after, and post-adoption. The psychological phenomena of parents coexisted with two-sided emotions. In other words, they felt anxious and relieved, and felt frustrated and excited. Before adoption, I could see that they were creating a growing relationship by shar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In addition, as a process of compensating for inferiority, adoption is progressing, compensating for inferiority without children, and pursuing better superiority, forming family solidarity and loving relationships.

Second, during adoption counseling, mothers and fathers experienced new family solidarity through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and experienced becoming a family in a new way. Adopted families acknowledged becoming a family based on legal and social relationships, not blood ties, and accepted them by all family members, so they experienced solidarity, formed a bond, and adjusted together, experiencing family in a new way.

Third, there was a part where adoptive parents were afraid that their children would have a hard time when they disclosed the fact of adoption to their adopted children. However, it was found that if it was disclosed naturally, children would naturally accept it. Adoptive parents make their adopted children accept the fact of adoption from an early age, so they are creating the identity of the adopted child.

Fourth, five famili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express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adoption and would like to adopt a second child if possible. They are very satisfied with having children and forming a family through adoption, and are satisfied with a happy life as they achieve

self-growth and a sense of superiority through becoming a family through a new method of adoption.

Key words: open adoption, adoption counseling, psychological phenomena, family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현상

연구자 : 김 임 순

소속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행정대학원 심리치료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입양 부모가 입양자녀를 입양을 결정하면서 받은 입양상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접은 최소 두 번 이루어질 것이며 매회 면접은 약 1-2시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면접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양육경험과 심리적 상태에 대해 물어 볼 것이며 면접자의 이야기는 녹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녹음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_\_\_\_\_는 이 연구의 취지에 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 자신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연구인이 참여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본인은 면담에 응할 것과 면담내용을 테이프로 기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연구가 끝난 뒤 녹음이 지워질 것을 설명 받았습니다.

참 여 자 :

연 구 자 : 김 임 순

날 짜 :       년       월       일